

자립준비청년의 아동·청소년기 외상과 초기부적응도식,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박 신 영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박사 수료

진 민 진
공주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현 명 호[‡]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본 연구는 자립준비청년의 아동·청소년기 외상이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초기부적응도식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이중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만 18세에서 만 34세 사이의 초기 성인기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연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201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아동·청소년기 외상과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초기부적응도식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간접효과가 각각 유의하였다. 둘째, 아동·청소년기 외상이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초기부적응도식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이중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립준비청년의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개입을 위해, 아동·청소년기 외상 후 형성된 초기부적응도식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순차적 매개 역할 및 중요성을 고려한 치료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자립준비청년이 호소하는 대인관계문제의 심리적 기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고, 이들이 경험한 아동·청소년기 외상에 대한 초기 개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자립준비청년, 아동·청소년기 외상, 초기부적응도식,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대인관계문제

[†] 본 연구는 2020년도 중앙대학교 CAU GRS 지원으로 작성됨.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현명호, (06974)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305동 905호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Tel: 02-820-5125. E-mail: hyunmh@cau.ac.kr

우리나라에서는 매해 약 이천오백 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다(보건복지부, 2022).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등 가정외보호를 받으며 생활하다가 만 18세(현재 만 24세까지 연장 가능)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을 말한다. 자립준비청년은 이른 나이 홀로서기를 시작하며 다양한 변화와 도전을 마주하게 되는데,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던 울타리에서 떠나 자립에 놓인 상황적 변화만으로도 이들이 경험하는 두려움과 막막함이 상당할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일반 청년에 비해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낮게 나타났으며(이상정 외, 2020), 외로움과 우울감(이정애, 정익중, 2019), 정서적 고립감(박혜지, 이정화, 2020),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지의 불안정성(장정은, 전종설, 2018) 등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조사에 의하면, 아동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이 죽음을 생각했던 가장 주된 이유는 대인관계에서의 갈등 및 스트레스였다(김지연 외, 2022). 여러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 후 대인관계 내에서 관계 형성에 대한 어려움(김미영, 최정숙, 2022; 정진희, 2021),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두려움과 자기 공개의 어려움(김태한, 2022; 박혜지, 이정화, 2020; 이정애, 정익중, 2019), 거절의 어려움(김미영, 최정숙, 2022) 등 다양한 대인관계 관련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시설퇴소 청소년의 절반 가까이가 거절에 대한 두려움, 시설에 관한 편견 및 자신감 부족 등으로 이성관계 내에서 심리적 불편감을 경험한다고 응

답하기도 했다(강현아, 신혜령, 박은미, 2009). 이처럼 보호종료 후 사회로 나가 필연적으로 맺어야 할 대인관계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그 자체로서도 직접적인 불편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자립 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고통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된 선행연구는 자립준비청년의 대인관계문제에 대해 자립 과정에서의 질적 경험 중 일부로 다루거나(김미영, 최정숙, 2022; 김태한, 2022; 박혜지, 이정화, 2020; 이정애, 김시아, 김지선, 정익중, 2019; 이정애, 정익중, 2019; 정진희, 2021), 실태조사나 패널조사와 같이 정서적 상태의 지표 중 하나로 언급하여(이상정 외, 2020), 대인관계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 연구는 아니었다. 시설퇴소 청년의 인간관계에 대해 질적 연구를 수행한 이용교와 안희란(2021)의 연구도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이나 불편감보다는 이들의 인간관계 특성 자체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자립준비청년이 경험하는 대인관계문제의 정도와 그 원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들의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아동·청소년기 외상에 대해 언급하였다(오유미, 이민규, 2021; 정지은, 정남운, 2023; Huh, Kim, Yu, & Chae, 2014). 자립준비청년은 가정외보호 전·후로 학대나 방임, 가정 폭력이나 부모의 이혼과 같은 부정적 생애 경험이나 외상 사건에 노출될 경향성이 높고, 이러한 문제가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상정 외, 2020). 실제 2021년 발생한 보호아동 3,657명의 발생 원인 중 전체의 47.39%가 학대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2). 학대와 방임과 같

이 정서적으로 매우 긴밀하게 연결된 주요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외상은 복합외상이자 애착외상의 형태를 띠며(Allen, 2005), 성격 및 대인관계문제를 포함해 성인기까지 심각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Van der Kolk, 2005). 따라서 자립준비청년이 아동·청소년기에 경험한 외상 경험과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반복되고 지속된 외상 경험과 그 영향이 축적되며 만들어질 수 있다고 알려진 초기부적응도식에 주목하였다. 초기부적응도식이란, 아동기 혹은 청소년기에 발달하여 생애 전반에 걸쳐 정교화되고 반복되는 역기능적인 사고와 감정의 패턴이자 틀이다(Young, Klosko, & Weishaar, 2003/2005). 이는 생애 초기에 개인이 안정 애착, 자율성, 자발성 등과 같은 핵심적이고 보편적인 정서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타고난 기질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이러한 욕구가 좌절될 때 형성된다(Young et al., 2003/2005).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을 통해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성인기 초기부적응도식 문헌을 분석한 연구(Pilkington, Bishop, & Younan, 2021)에서는 아동·청소년기에 발생한 방임이나 학대 경험과 성인기 초기부적응도식의 관련성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국내의 선행연구에서도 아동기 외상 경험과 초기부적응도식 간의 관계에 대해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김지나, 이홍숙, 2023; 이에담, 한아름, 김정민, 2022; 이후정, 조정덕, 2020; 조소영, 김진숙, 2020).

초기부적응도식은 자신 및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평가(Young et al., 2003/2005)로 자신과 타인

에 대한 표상을 형성하여 이후 자신과 타인의 상호작용인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권석만, 김지영, 2002). 심리도식치료 연구동향(정재석, 2019)과 초기부적응도식 연구동향(주하진, 김장희, 2021)에 대한 연구에서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형성된 초기부적응도식의 역기능적 패턴이 대인관계 어려움을 유발하거나 반복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선행연구에서는 초기부적응도식이 대인관계문제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김지나, 이홍숙, 2023; 조소영, 김진숙, 2020; 최나운, 이영호, 2018). 특히 초기부적응도식 중에서도 단절 및 거절 영역의 도식은 아동기 외상 경험과 관련이 높으며(김재호 외, 2013; Cukor & McGinn, 2006; Young et al., 2003/2005), 이는 이후 심리적 적응과 대인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안하얀, 서영석, 2010; Welburn, Coristine, Dagg, Pontefract, & Jordan,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기부적응도식 중에서도 단절 및 거절 영역 도식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러한 초기부적응도식은 대인관계문제가 외현화되기 이전의 정서조절 문제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초기부적응도식은 주로 자신의 도식이 형성되었던 환경을 연상하게 하는 자극을 접했을 때 촉발되며, 이와 함께 높은 수준의 부정적 감정이 유발된다(Young et al., 2003/2005). 이렇게 유발된 감정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냐는 개인의 정서조절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서조절능력은 다양한 상황에서 감정을 경험하고, 그에 따른 반응을 사회적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절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의미한다(Cole, Michel, & Teti, 1994). 선행연구에서는 특히 정서에 대한 행동 반응이 나타나기 전인 인지적인 처리과정에

서 정서를 다루는 전략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정서조절에 효과적이라 보고한다 (Gamefski, Kraaij, & Spinhoven, 2001).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으로 나뉘는데,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는 긍정적 재평가, 긍정적 초점변경 및 조망확대, 수용, 계획, 다시 생각하기가 포함되고,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는 과국화, 자기비난, 타인비난, 반추가 포함된다(Gamefski et al., 2001).

이 중에서도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대인관계문제를 비롯한 심리적 부적응을 예측한다(설정훈, 박수현, 2015; 이지수, 양난미, 2018; 주혜원, 배희분, 2020; 최윤영, 2021). 실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주로 사용하는 청소년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또래와의 관계적 공격성이 더 높았으며(이하연, 박주희, 2014),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사용이 대학생의 사회불안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등(김나경, 양난미, 2016), 대인관계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외상 경험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인외상 경험은 반추, 자기비난, 과국화라는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활용을 정적으로 예측하였고(서수현,

2020), 대인외상을 경험한 이가 비대인외상을 경험한 이에 비해 타인비난과 과국화와 같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더 많이 활용하였다(이수림, 2015). 복합외상 경험이 많을수록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이디슬, 오성은, 신성만, 2021).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보았을 때, 개인이 관계 내에서 외상이라는 극심한 충격을 경험하게 되면, 정서처리과정에서 심리적 부적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전략을 활용할 경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아동·청소년기 외상 경험도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추측하였다.

아동기 외상의 영향으로 형성된 초기부적응도식으로 인해 개인이 자신의 부적응적인 감정과 신체 반응에 압도되어 정서조절의 실패에 이르게 된다는 연구가 있다(김지나, 이홍숙, 2023). 이는 아동·청소년기 외상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초기부적응도식이 대인관계문제와 같은 심리적 부적응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서를 조절하거나 처리하는 변인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더불어 앞서 언급한 변인 간의 관계를 종합해보면, 아동·청소년기 외상 경험이 초기부적응도식을 유발하며, 초기부적응도식은 부적응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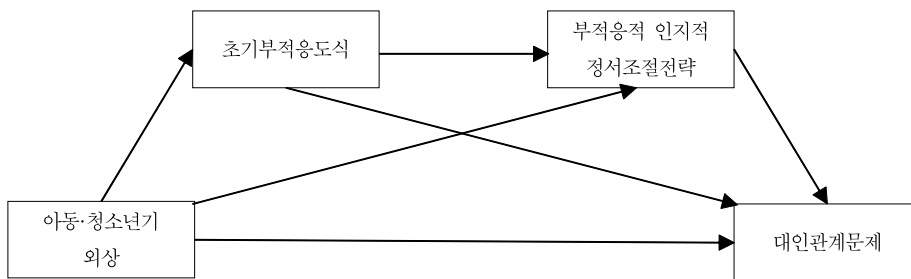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이르러 대인관계문제를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자립준비청년의 아동·청소년기 외상 경험이 대인관계문제에 이르는 과정에서 초기부적응도식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이중매개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자립준비청년의 아동·청소년기 외상 경험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을 깊이 탐색할 것이다. 또한, 이들이 겪는 대인관계문제를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입 방법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방 법

연구 참여자 및 모집 절차

본 연구의 참여자는 만 18세에서 만 34세 이하의 초기 성인기 자립준비청년이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초기 성인기는 가정외보호 체계에서의 자립을 시작하는 시점이자 인생에서 주도적인 삶을 시작하는 전환기이다. 이들이 경험하는 대인관계 문제가 지속될 경우, 자립 과정에서 느끼는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가중하여 원활한 적응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위험성 또한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초기 성인기의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립준비청년 대상의 온라인 카페에서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이를 참여자로 모집하였다. 해당 온라인 카페에서는 개인정보를 공개한 자립준비청년과 후원자가 전체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다. 설문 시 외상을 회상하

며 불편하고 힘든 마음이 들어 설문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응답을 중지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이로 인한 불편감을 경험한다면 언제든지 연구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온라인으로 회수된 설문 중, 연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한 총 201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중앙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1041078-20230531-HR-152).

측정 도구

아동·청소년기 외상. Bernstein과 Fink(1998)가 개발하고 유재학, 박지선, 박두흠, 유승호, 하지현(2009)이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아동기 외상 질문지(Korean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K-CTQ)를 사용하여 아동·청소년기 외상을 측정하였다. 이 질문지는 정서방임, 신체방임, 정서학대, 신체학대, 성학대의 다섯 가지 외상 경험을 파악한다. K-CTQ는 세 문항의 타당도 문항을 포함하여 총 28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며, 타당도 문항을 제외한 25문항의 점수 총합이 높을수록 외상 경험의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장 과정에서 18세 이전에 경험한 외상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부모님이 없거나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면 가정외보호 체계에서의 주양육자와 구성원을 생각하여 응답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척도가 타당화된 시점을 감안하여, ‘성적인 잡지, 비디오’를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과 같이 시대에 맞게 변경하였고, ‘누군가(이성이) 성적으로 치근덕거렸다’와 같은 표현은

‘누군가 성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와 같이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 (Cronbach’s α)는 .948로 나타났다.

초기부적응도식. 초기부적응도식은 Young (1990)이 개발한 도식 질문지 단축형(Young Schema Questionnaire-Short Form: YSQ-SF)을 이미열(2006)이 한국어로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75문항 중 단절 및 거절 영역 도식과 관련된 25문항을 활용하였다. 해당 문항은 정서적 박탈, 유기/불안정, 불신, 사회적 고립, 결함/수치심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6점 리커트 척도에 응답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81이었다.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Garnefski 등 (2001)이 개발하고 김소희(2004)가 번안한 척도를 안현의, 이나빈, 주혜선(2013)이 타당화한 한국판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척도(Korean version of the Cognitive Emotional Regulation Questionnaire: K-CERQ) 중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측정하는 문항을 활용하여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측정하였다. 이는 16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파국화, 반추, 자기비난, 타인비난의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23이었다.

대인관계문제. Horowitz, Rosenberg, Bear, Ureno와 Villasenor(1988)이 개발한 척도를 Alden, Wiggins와 Pincus(1990)이 원형척도로 재구성하고, 홍상환 등(2002)이 단축형으로 타당화한 대인관계문제척도(Short form of the Korean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Circumplex Scale: KIIP-SC)를 사용하여 대인관계문제를 측정하였다. KIIP-SC는 총 40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사회적 억제, 비주장성, 과순응성, 자기희생, 지배통제, 과관여, 자기중심성, 냉담의 총 8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 (Cronbach’s α)는 .979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아동·청소년기 외상 관련 변인.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연령과 성별, 보호유형, 보호기간, 보호종료연차, 학력, 주관적으로 지각한 사회경제적 수준을 측정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아동·청소년기 외상과 관련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외상 경험의 빈도, 외상 지속 기간, 외상이 주로 발생한 장소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문하였다.

자료 분석

자료의 분석은 IBM SPSS 29.0과 SPSS PROCESS macro 4.2v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우선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고자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특성 및 주요 변인 간의 경향성 및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SPSS를 활용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주요 변인 간 다중공선성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기 외상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초기부적응도식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이중매개효과를 SPSS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후 본 연구는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Bootstrapping 방식을 적용하여 간접효과의 통계

적 유의성을 평가하고자 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본을 5000회 복원추출하였고, 95% 신뢰구간에서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 과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및 외상 관련 특성

본 연구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23.73($SD=3.16$)세이며, 참여자 중 여성이 132명(65.7%), 남성이 69명(34.3%)이었다. 참여자는 아동양육시설에서 119명(59.2%), 공동생활가정에서 34명(16.9%)이 보호받았고, 48명(23.9%)은 가정위탁(대리위탁가정, 친인척위탁가정, 일반위탁가정)에서 보호받았다. 참여자는 보호기관에서 평균 94.86($SD=54.44$)개월을 지냈고, 보호종료 후 평균 3.76($SD=2.99$)년이 지난 상태였다. 구체적인 빈도를 살펴보면, 보호종료 5년차 이내인 경우가 136명으로 전체의 67.7%에 해당하였고, 6년차에서 10년차가 52명(25.9%), 11년차에서 14년차가 13명(6.4%)이었다. 학력은, 중학교 졸업 이하가 7명(3.5%), 고등학교 졸업이 119명(59.2%), 2-3년제 대학 재학(중퇴 및

휴학 포함)이 24명(11.9%), 2-3년제 대학 졸업이 13명(6.5%), 4년제 대학 재학(중퇴 및 휴학 포함)이 13명(6.5%), 4년제 대학 졸업이 25명(12.4%)이었다. 주관적으로 지각한 사회경제적 수준은, 하수준이 75명(37.3%), 중하 수준이 81명(40.3%), 중수준이 36명(17.9%), 중상 수준이 7명(3.5%), 상수준이 2명(1.0%)이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가 경험한 아동·청소년기 외상의 특성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기 외상 척도인 K-CTQ의 평균은 68.15($SD=21.21$)점이었으며, 정도 이상을 나타내는 절단점 41점 이상이 전체의 89.1%, 중증에서 극심한 정도를 나타내는 절단점 73점 이상이 전체의 41.8%였다. 전체의 87.1%가 두 차례 이상의 외상을 반복하여 경험하였고, 전체의 18.9%는 빈도를 셀 수 없을 정도의 잦은 외상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외상 지속 기간은 전체의 45.8%가 외상 경험이 1년 이상이라고 보고하였고, 외상 경험이 5년 이상 지속되었다고 응답한 비율도 전체의 12.9%에 해당하였다. 아동·청소년기 외상이 주로 발생한 장소를 살펴보면, 전체의 50.2%가 가정외보호 전후 원가정에서 외상을 경험하였고, 아동양육시설에서 27.9%, 공동생

표 1. 주요 변인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1	2	3	4
1. 아동·청소년기 외상				
2. 초기부적응도식	.525**			
3.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499**	.807**		
4. 대인관계문제	.517**	.920**	.797**	
평균	68.15	94.52	51.62	122.36
표준 편차	21.21	32.35	13.07	37.36
왜도	.059	-.335	-.389	-.205
첨도	-.560	-1.060	-.439	-.851

주. ** $p<.01$.

활가정에서 6.5%, 위탁가정에서 12.4%, 기타 3% 순이었다.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주요 변인 간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를 표 1에 기술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모든 변인의 왜도는 2 이하이고 첨도는 7 이하로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다.

변인 간 상관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기 외상은 대인관계문제와 정적 상관이 있었고($r=.517, p<.01$), 초기부적응도식($r=.525, p<.01$),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r=.499, p<.01$)과도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초기부적응도식은 대인관계문제($r=.920, p<.01$), 그리고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정적 상관이 유의하였다($r=.807, p<.01$).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대인관계문제 역시 정적 상관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r=.797, p<.01$).

변인 간 상관이 높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을 분석한 결과, 아동·청소년기 외상과 초기부적응도식,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종속변인인 대인관계문제를 예측하는 모형의 Durbin-Watson이 1.629로 잔차 독립성을 충족하였다. 해당 모형에서 VIF(Variance Inflation Factor)의 경우, 아동·청소년기 외상, 초기부적응도식,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각각 1.413, 3.042, 2.933으로, 모두 10 미만이었다. 이에 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보호기간, 보호유형, 성별, 주관적으로 지각한 사회경제적 수준은 매개변인 및 종속변인과 유의한 상관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보호종료연차는 초기부적응도식($r=.171, p<.05$) 및 대인관계문제와 유의한 상관($r=-.157, p<.05$)이 있었고, 학력은 초기부적응도식($r=-.183, p<.01$)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r=-.144, p<.05$) 그리고 대인관계문제($r=-.183, p<.01$)와 각각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이에 학력과 보호종료연차를 모든 분석에서 공변인으로 투입하였다.

아동·청소년기 외상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초기부적응도식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이중매개효과

아동·청소년기 외상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초기부적응도식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이중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청소년기 외상이 초기부적응도식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다($\beta=.523, t=8.938, p<.001$). 둘째,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대해 아동·청소년기 외상과 초기부적응도식을 동시에 투입하자, 초기부적응도식이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정적으로 예측하였고($\beta=.774, t=15.222, p<.001$), 아동·청소년기 외상이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beta=.090, t=1.814, p>.05$).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아동·청소년기 외상과 초기부적응도식의 설명력은 66.4%였다. 셋째, 대인관계문제를 종속변인으로 아동·청소년기 외상, 초기부적응도식,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모두 동시에 분석하자, 초기부적응도식($\beta=.772, t=15.686, p<.001$)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beta=.154, t=3.295, p<.01$)은 대인관계문제를 각각

표 2. 아동·청소년기 외상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초기부적응도식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이중매개효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β	SE	t	95% CI		F	R ²
					LL	UL		
아동·청소년기 외상	초기부적응도식	.523	.089	8.938***	.621	.973	33.228	.336
아동·청소년기 외상	부적응적 초기부적응도식	.090	.031	1.814	-.005	.115	96.657	.664
초기부적응도식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774	.021	15.222***	.272	.353		
아동·청소년기 외상	대인관계문제	.033	.058	1.024	-.055	.173	232.504	.856
초기부적응도식	대인관계문제	.772	.057	15.686***	.779	1.004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대인관계문제	.154	.134	3.295**	.177	.704		

주. CI=Confidence Interval; LL=Lower Limit; UL=Upper Limit.

** $p<.01$, *** $p<.001$.

표 3. 아동·청소년기 외상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초기부적응도식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간접효과

	β	SE	95% CI	
			LL	UL
아동·청소년기 외상 → 초기부적응도식 → 대인관계문제	.403	.057	.286	.511
아동·청소년기 외상 →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 대인관계문제	.014	.009	.000	.035
아동·청소년기 외상 → 초기부적응도식 →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 대인관계문제	.062	.024	.022	.115

주. CI=Confidence Interval; LL=Lower Limit; UL=Upper Limit.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했다.

아동·청소년기 외상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총 효과는 $\beta=.513$ ($SE=.104$, $t=8.677$, $LLCI=.699$, $ULCI=1.110$, $p<.001$)로 유의하였는데, 해당 경로

에 초기부적응도식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추가되었을 때 아동·청소년기 외상이 대인 관계문제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아($\beta=.033$, $SE=.058$, $t=1.024$, $LLCI=-.055$, $ULCI=.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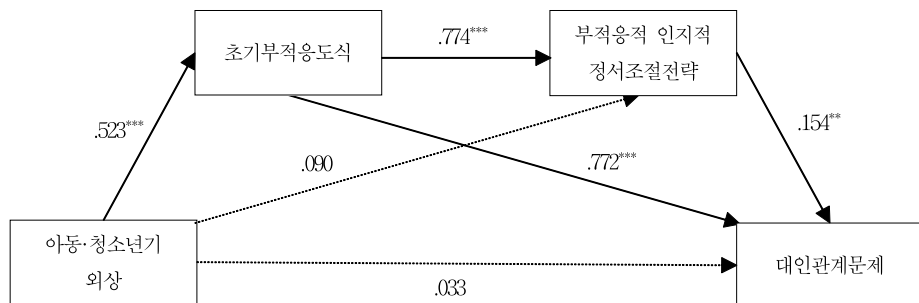


그림 2. 아동·청소년기 외상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초기부적응도식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이중매개모형

주. ** $p<.01$, *** $p<.001$.

$p > .05$), 아동·청소년기 외상과 대인관계문제 간 관계에서 초기부적응도식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청소년기 외상 경험이 증가할수록 초기부적응도식의 수준이 높아지고, 초기부적응도식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하며,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하면 대인관계문제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아동·청소년기 외상과 초기부적응도식,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설명력은 85.6%였다.

아동·청소년기 외상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초기부적응도식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고자 Bootstrapping을 시행하였다.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아동·청소년기 외상이 초기부적응도식을 거쳐 대인관계문제로 이어지는 경로의 간접효과는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 [.286, .511]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하였다. 아동·청소년기 외상이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경유하여 대인관계문제에 이르는 경로는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 [.000, .035]에 0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기 외상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초기부적응도식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차례로 매개하는 경로의 경우,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 [.022, .115]에 0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유의하였다. 따라서 아동·청소년기 외상이 초기부적응도식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주는 이중매개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자립준비청년의 아동·청소년기 외상 경험이 대인관계문제에 이르는 경로에서 초기부적응도식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이중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그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부적응도식은 자립준비청년의 아동·청소년기 외상과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초기부적응도식이 아동기에 반복된 유해한 경험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누적된 외상 경험은 초기부적응도식을 형성하여 유의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Young 등(2003/2005)의 주장을 지지한다. 또한 아동기 외상이 대인관계문제에 이르는 경로에서 초기부적응도식의 완전매개 역할을 확인하였던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김지나, 이홍숙, 2023; 조소영, 김진숙, 2020; 최나운, 이영호, 2018). Young 등(2003/2005)은 내담자가 초기부적응도식을 자각하는 것만으로도 이로 인한 자신의 반응을 의식적으로 통제해나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상담 과정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이 대인관계에서 호소하는 문제가 과거 경험한 아동·청소년기 외상의 결과 중 하나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이들이 경험한 외상과 관련하여 반복되는 인지와 행동의 패턴을 인식하도록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겠다.

둘째, 자립준비청년의 아동·청소년기 외상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간접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는 아동·청

소년기 외상 경험이 많을수록 평소 정서처리과정에서 심리적으로 부적응적인 결과를 유발할 경향성이 높은 전략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고, 해당 전략을 자주 활용할수록 대인관계문제가 증가할 경향성이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인외상 경험이 과국화, 자기비난, 반추라는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매개하여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과 같은 대인관계 어려움으로 이어진 선행연구(서수현, 2020) 결과의 맥락과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였을 때, 상담자는 아동·청소년기 외상 경험이 있는 자립준비청년이 주로 활용하는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확인하고, 해당 전략의 활용이 이들의 대인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앞서 Bootstrapping을 통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간접효과는 유의하였으나, 결과의 해석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개인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활용할 수 있으며, 같은 전략이라도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안현의 외, 2013). 따라서 상담자는 이러한 다양성과 상황에 따른 변화 가능성을 함께 인지하고 상담을 진행해야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의 아동·청소년기 외상과 대인관계문제 사이에서 초기부적응도식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이중매개하였다. 이는 아동·청소년기 외상을 경험한 자립준비청년은 사회적 상황에서 초기부적응도식으로 촉발되는 불편한 정서를 자기비난, 타인비난, 과국화, 반추와 같은 부적응적 방식으로 처리할 경향성이 높고, 이러한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대인관계문제를 야기할 경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부적응도식 자체

도 대인관계문제를 유발할 수 있지만, 특정 초기부적응도식에 따르는 반응이나 대처방식 자체가 삶의 질을 낮출 수 있음을 의미한다(Young et al., 2003/2005). 특히 본 연구에서와 같이 정서를 조절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방향의 전략을 선택하는 것은 개인이 경험하는 대인관계문제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는 정서표현양가성과 부적응적 정서조절방략(권진희, 김해란, 2017), 감정표현불능증(조소영, 김진숙, 2020), 정서조절곤란(최나윤, 이영호, 2018)과 같이 정서와 관련된 어려움이 초기부적응도식과 대인관계문제 간의 경로를 매개한다고 밝혔다. 유사한 맥락에서, 대학생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대인관계 문제 간에서도 정서표현억제가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원, 이지연, 2020).

이러한 결과를 통해 미루어보았을 때, 초기부적응도식에 따르는 부정적인 정서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대인관계문제를 경감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겠다. 이에 상담 과정에서는 초기부적응도식에 따르는 다양한 반응 중 특히 정서를 처리하는 과정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개입할 필요가 있다. 즉, 사회적 상황에서 초기부적응도식으로 인해 촉발되는 부정적 정서를 처리할 때, 내담자가 인지적 처리 과정에서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대처전략을 의식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본인이 사용하는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스스로에게 적응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개입하는 것이 대인관계문제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실제로 진이주와 김준경(2020)의 연구에서는 초기부적응도식과 심리적 부적응 간 관계에서 적응적인 정서조절전략이 심리적 부적응을 부적응으로 예측하는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아동·청소년기 외상이 초기부적응 도식을 거쳐 대인관계문제를 예측하는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상담 과정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이 자신이 겪는 대인관계문제의 심리기제를 이해하고, 아동·청소년기 외상의 영향으로 형성된 초기부적응도식의 부정적 영향을 줄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초기부적응도식은 오랜 시간에 걸쳐 영속화된 개인의 세계로, 내담자에게 해롭지만 안정적인 특성을 지닌다 (Young et al., 2003/2005). 이는 초기부적응도식이 단기간에 변화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초기부적응도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하고 변화가 가능한 치료 기제이다(Garnefski, Kraaij, & Schroevers, 2001).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상담 과정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의 초기부적응도식 변화를 궁극적이고 장기적인 목표로 두되, 상담 초기 단계에서는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개선을 통해 대인관계문제를 줄여나가는 접근을 먼저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단계적으로 변화를 촉진하는 치료 전략으로,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의 저항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 참여자인 자립준비청년은 높은 수준의 아동·청소년기 외상을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본 연구 참여자의 K-CTQ 평균 점수는 68.15점이었던 것에 비해, 만 19세 이상 40세 미만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하지윤, 2023)에서는 참여자의 K-CTQ의 평균 점수가 50.12점이었다. 연구 참여자의 연령이나 특성이 동일하지 않아 결과를 비교하는데 제한은 있겠으나, 이러한 점을 감안해도 자립준비청년이 경험한 아동·청소년기 외상의 수준은 심각한 편으로 추정된다. 또

한 본 연구의 자립준비청년은 다양한 애착 발생 환경에서 두 차례 이상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외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원가정에서 외상을 경험하는 비율이 참여자의 절반이었으나 나머지 절반은 가정외보호 체계에서 시설 선생님 혹은 대리 양육자와의 관계나 함께 생활하는 구성원 내에서 외상을 경험하였다. 이로 미루어볼 때, 현재 자립준비청년이자 과거 보호아동의 일부는 가정외보호 체계에 편입된 이후에도 외상을 경험한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의 자립준비청년이 보고한 아동·청소년기 외상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들이 경험한 외상은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대인 간 폭력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외상이자 애착외상으로 생각된다. 실제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등은 대표적인 복합외상으로 간주하는데, 이러한 복합외상 경험은 감정과 충동 조절의 어려움과 더불어 주의 또는 의식, 스스로에 대한 지각, 가해자에 대한 지각, 대인관계, 삶을 바라보는 관점 등에서 부정적인 변화를 유발한다(Herman, 1992). 이는 아동·청소년기에 경험한 외상이 세상을 바라보는 역기능적인 틀인 초기부적응도식을 형성하게 하고, 그 틀이 감정을 잘못된 방식으로 처리하게 하여 결국 개인의 대인관계문제를 심화시킨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도 긴밀한 연관이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이 보고한 외상의 강도와 지속성이 모두 심각했던 것만큼, 이로 인해 형성된 초기부적응도식 또한 매우 견고하였다. 실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초기부적응도식을 측정한 연구(김지나, 이홍숙, 2023)에서 도식의 평균이 1.964이었던 것보다 본 연구에서의 점수가 두 배 가까이 높았다($M=3.81$). 또한, 부적응

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도 이인숙, 신희천(2021)의 연구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측정되었던 점수 ($M=2.9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M=3.23$). 이는 초기부적응도식의 수준이 높았던 만큼, 인지적 정서조절전략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모든 부정적 변화의 첫 원인은, 자립준비청년이 아동·청소년기에 경험한 외상이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가정외보호 체계 하에서 보호를 받기 전, 아동·청소년이 경험한 외상에 대한 개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다.

구체적으로는, 본 연구에서와 같이 복합외상을 경험한 아동과 청소년에게는 정서조절기술 교육 및 대인관계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통합 치료를 우선 고려할 수 있으며(최지영, 2018; Dorsey et al., 2017), 이들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두드러지는 경우 외상중심 인지행동 치료(Trauma-Focused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TF-CBT)와 같은 외상중심치료를 고려할 수 있겠다. 실제 TF-CBT는 근거기반치료에서 외상 경험 아동을 위해 제안하는 치료 중 하나로, 최근 해외 위탁보호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TF-CBT의 치료적 개입이 참여 아동의 일상 기능의 손상과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sterer et al., 2023). 그러나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동·청소년이 보호 전 단계에서 경험한 외상 사건의 심각성이나 형태, 이로 인한 심리적 상태를 심리평가와 주기적인 면담을 통해 면밀하게 파악하고, 개인별 특성이나 양상에 맞는 개입을 융통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아동·청소년기 외상이 주로 발생한 장소에 대한 결과는 이미 외상을 경험한

아동과 청소년이 정서적으로 취약한 상태임을 감안하더라도, 가정외보호 체계에서 이들이 안전하다고 느끼기 어려운 양육환경에 노출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추측하게 한다. 이들이 경험한 외상이 쌓여 부정적인 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가정외보호 체계에서의 안전한 양육환경임을 고려할 때, 외상을 경험한 보호 아동 및 청소년의 정서적 상태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과 더불어 이들을 양육하는 가정외보호 시설 종사자 및 대리 양육자를 위한 세심한 교육과 전문성 관리가 필요하다. 다만 가정외보호 시설 유형을 막론하고 인력이 부족하며 업무량이 과중한 현재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이상정, 류정희, 김지연, 김무현, 김지민, 2019), 시설 내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돌봄으로 인한 정서적 소진감을 방지하는 방안을 고안하는 등 온정적인 양육에 힘 쏟을 수 있는 구조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결과를 통해 살펴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만 18세에서 만 34세 이하의 초기 성인기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현재까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대부분이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청년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이는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하는 점과 더불어 사후관리망을 벗어난 자립준비청년을 표집하기 어렵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호종료 후 다양한 연차로 구성된 만 18세에서 만 34세까지의 초기 성인기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대상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본 연구의 또 다른 의의는 자립준비청년이 아

동·청소년기에 경험한 외상이 보호종료 후 대인관계문제에 이르는 과정과 더불어 그 과정에서 연결고리가 되는 매개변인인 초기부적응도식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역할과 중요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대인관계문제를 호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개입할 때, 이러한 변인의 상호 관계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담에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기 외상의 영향과 더불어 외상의 강도와 지속성, 발생 장소에 대해 추가적으로 함께 탐색하여, 자립준비청년이 경험한 외상의 특성을 깊이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립준비청년이 경험한 아동·청소년기 외상을 복합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접근해야 할 필요성과 더불어 보호 전 단계에서부터 이들이 경험한 외상에 대한 초기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나아가 상담 과정에서 자립준비청년이 호소하는 심리적 어려움의 기원을 추측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에 대해 살펴보겠다.

첫째, 본 연구 참여자의 성별과 가정외보호 유형에 따른 인원은 고르게 분포되지 않았다. 성별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고, 보호기관 유형별 인원은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한 이가 전체의 절반 이상이었다. 성별과 보호기관 유형에 따른 차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성별이나 보호기관 유형을 포함하여 지역, 연령 등에 따른 인원을 유사하게 모집한다면 자립준비청년 대상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다. 또한 보호기관 유형별 인원이 균형적으로 모집된

다면, 보호기관 유형에 따른 분석 결과의 차이를 비교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K-CTQ는 아동기 외상 경험을 측정할 때 널리 사용하는 척도이다. 그러나 K-CTQ의 타당화 시점과 더불어 척도 내 일부 문항이 응답자에 따라 외상적 경험으로 개념화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K-CTQ의 사용과 해석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즉, 본 연구에서 측정한 아동·청소년기 외상은 개인의 주관적 해석과 맥락에 따라 평가된 경험이므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기 외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절 및 거절 영역의 도식만을 초기부적응도식으로 측정하였다. 그러나 초기부적응도식에는 이 외에도 네 가지 다른 영역의 도식이 있으며, 각 도식이 이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의 아동·청소년기 외상 경험과 각각의 도식의 관련성과 더불어 각각의 도식이 대인관계를 비롯한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탐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정서조절의 인지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변인임을 고려할 때, 정서조절의 행동적 측면과 더불어 정서의 인식 단계에서의 어려움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이러한 연구는 전반적인 정서처리과정에서 어떠한 측면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치료적 개입을 해나갈지에 대한 세부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현아, 신혜령, 박은미 (2009). 시설 퇴소청소년의 성인 전환 단계에 따른 자립 및 사회적응 현황. *한국아동복지학*, 30, 41-69.
- 권석만, 김지영 (2002). 자기 및 타인 표상과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705-726.
- 권진희, 김해란 (2017). 단절 및 거절도식과 대인관계 문제에서 정서표현양가성과 부적응적 정서조절방략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5(1), 13-24.
- 김나경, 양난미 (2016).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사회불안의 관계: 거부민감성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7(2), 217-237.
- 김미영, 최정숙 (2022). 아동양육시설 보호종료자의 자립 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사회적기업 (주)브라더스키퍼 참여자 경험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3(1), 3-35.
- 김소희 (2004). 스트레스 사건,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재호, 김지은, 원승희, 임효덕, 김병수, 이승재 (2013). 아동기 외상이 초기 부적응적 스키마 범주에 미치는 영향. *신경정신의학*, 52(5), 334-341.
- 김지나, 이홍숙 (2023). 아동기 복합외상이 초기 성인기의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초기부적응도식과 자기체계손상의 순차적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24(2), 29-54.
- 김지연, 백혜정, 김미향, 김성아, 정소연, 이우태, . . . 박광욱 (2022). 청년종합연구 I: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태한 (2022). 공동생활가정에서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생활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놀이치료연구*, 26(3), 37-57.
- 김혜원, 이지연 (2020). 아동기의 정서적 외상 경험이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억제와 수동적 갈등대처방식의 순차적 매개효과 검증. *사회과학연구*, 31(3), 145-164.
- 박혜지, 이정화 (2020).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청소년들의 자립과정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31(1), 65-80.
- 보건복지부 (2022). 2021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
- 서수현 (2020). 대학생의 대인 외상 경험과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간의 관계: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설정훈, 박수현 (2015). 해군 장병의 스트레스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정신건강 문제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4(2), 553-578.
- 안하얀, 서영석 (2010). Young의 단절 및 거절 도식, 부정적 기분, 대인관계문제: 정서적 과민반응과 정서적 단절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4), 847-865.
- 안현의, 이나빈, 주혜선 (2013). 한국판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척도(K-CERQ)의 타당화. *상담학연구*, 14(3), 1773-1794.
- 오유미, 이민규 (2021). 아동·청소년기 복합외상경험과 성인기 대인외상의 관계: 해리경험, 관계중독,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스트레스研究*, 29(1), 1-10.
- 유재학, 박지선, 박두흠, 유승호, 하지현 (2009). 한국판 아동기 외상 질문지의 타당화: 상담 및 치료적 개입에서의 활용.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3), 563-578.
- 이다슬, 오성은, 신성만 (2021). 청소년의 복합외상이 비자살적 자해에 미치는 영향: 부적응적 인지 정서조절 전략과 생리적 스트레스의 이중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8(11), 235-257.
- 이미열 (2006). 청소년기 애착과 우울증과의 관계: 초기부적응도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상정, 김지민, 류정희, 허은영, 박세경, 임성은, 김지연, 황정하, 김무현 (2020).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 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정, 류정희, 김지연, 김무현, 김지민 (2019).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 준비 실태와 자립 지원 체계 개선 방안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수림 (2015). 외상 경험 및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외

- 상후스트레스장애와 외상후성장에 미치는 영향. *인문학논총*, 39, 93-124.
- 이예담, 한아름, 김정민 (2022).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초기부적응도식의 매개효과. *한국생활과학회지*, 31(1), 15-22.
- 이용교, 안희란 (2021). 시설퇴소 청년의 인간관계에 관한 질적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65, 129-168.
- 이인숙, 신희천 (2021). 성인애착과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1), 479-505.
- 이정애, 김시아, 김지선, 정익중 (2019). 가정외보호 퇴소청소년의 자립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 *한국아동복지학*, 65, 23-56.
- 이정애, 정익중 (2019). 가정외보호 퇴소청소년의 긍정과 부정울 오가는 자립경험. *학교사회복지*, 46, 129-166.
- 이지수, 양난미 (2018). 대학생의 애착불안과 우울의 관계: 자기자비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2), 397-422.
- 이하연, 박주희 (2014).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중학생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5(3), 233-257.
- 이후정, 조경덕 (2020). 애착외상과 초기부적응도식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상담심리치료학회지*, 5(1), 34-62.
- 장정은, 전종설 (2018). 양육시설 퇴소 청소년의 초기 자립경험. *청소년복지연구*, 20(2), 95-125.
- 정재석 (2019). 심리도식치료 연구동향: 융합상담치료연구, 2(2), 95-118.
- 정지은, 정남운 (2023). 아동기 외상과 성인기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 내면화된 수치심과 경험 회피의 순차적 매개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8(2), 125-148.
- 정진희 (2021). 보호종류아동의 자립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조소영, 김진숙 (2020). 아동기 외상과 초기 성인기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초기부적응도식과 감정표현불능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7(3), 323-352.
- 주하진, 김장희 (2021). 청소년의 초기부적응도식 관련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교육치료연구*, 13(2), 251-273.
- 주혜원, 배희분 (2020).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학생 자녀의 대인관계문제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5(2), 41-62.
- 진이주, 김춘경 (2020). 예비교사의 초기 부적응도식과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 연구. *생애학회지*, 10(1), 59-76.
- 최나운, 이영호 (2018). 아동기 외상이 초기 성인기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초기부적응도식과 자기개념 및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5(2), 137-166.
- 최윤영 (2021). 생도생활 스트레스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기자비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7(2), 195-217.
- 최지영 (2018). 외상 경험 아동에 대한 근거기반치료.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7(4), 605-620.
- 통계청 (2022). 2021년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자료.
- 하지윤 (2023). 아동-청소년기 복합 외상 경험이 성인기 정서조절곤란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홍상환, 조용래, 권정혜, 박은영, 김영환, 진유경 (2002).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 원형척도의 단축형(KIIP-SC) 구성.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4), 923-940.
- Allen, J. G. (2005). *Coping with trauma: Hope through understanding* (2nd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Inc.
- Alden, L. E., Wiggins, J. S., & Pincus, A. L. (1990). Construction of circumplex scales for the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5, 521-536.
- Bernstein D. P., & Fink, L. (1998).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A retrospective self-report*

- manual*. San Antonio, TX: Harcourt Brace.
- Cole, P. M., Michel, M. K., & Teti, L. O. (1994).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A clinical perspective.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73-100.
- Cukor, D., & McGinn, L. K. (2006). History of child abuse and severity of adult depression: The mediating role of cognitive schema. *Journal of Child Sexual Abuse, 15*(3), 19-34.
- Dorsey, S., McLaughlin, K. A., Kerns, S. E. U., Harrison, J. P., Lambert, H. K., Briggs, E. C., . . . & Amaya-Jackson, L. (2017). Evidence base update for psychosocial treatment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exposed to traumatic events.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46*, 303-330.
- Esterer, M., Carlson, J. S., Roschmann, S., Kim, H., Cowper, A., Cranmer-Fosdick, H., . . . & DeCicco, B. (2023). Exploring early termination patterns and effectiveness of trauma-focused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for children in foster car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47*, 106841. doi: 10.1016/j.childyouth.2023.106841
- Gamefski, N., Kraaij, V., & Spinhoven, P. (2001). Negative life event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emotional proble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8), 1311-1327.
- Gamefski, N., Kraaij, V., Schroevers, M. J., & Somsen, A. (2008). Post-traumatic growth after a myocardial infarction: A matter of personality, psychological health, or cognitive coping?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in Medical Settings, 15*(4), 270-277.
- Herman, J. L. (1992). Complex PTSD: A syndrome in survivors of prolonged and repeated trauma. *Journal of Trauma Stress, 5*, 377-391.
- Horowitz, L. M., Rosenberg, S. E., Baer, B. A., Ureño, G., & Villaseñor, V. S. (1988).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linical applica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6), 885-892.
- Huh, H. J., Kim, S. Y., Yu, J. J., & Chae, J. H. (2014). Childhood trauma and adult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oblems in patients with depression and anxiety disorders. *Annals of General Psychiatry, 13*(1), 1-23.
- Pilkington, P. D., Bishop, A., & Younan, R. (2021).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early maladaptive schemas in adulthood: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28*(3), 569-584.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Van der Kolk, B. A. (2005). Developmental trauma disorder. *Psychiatric Annals, 35*(5), 401-408.
- Welburn, K., Coristine, M., Dagg, P., Pontefract, A., & Jordan, S. (2002). The Schema Questionnaire—Short Form: Factor analysis and relationship between schemas and symptom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6*(4), 519-530.
- Young, J. E. (1990). *Cognitive therapy for personality disorders*. Sarasota, FL: Professional Resources Press.
- Young, J. E., Klosko, J. S., & Weishaar, M. E. (2003). 심리도식치료 [Schema therapy: A Practitioner's guide]. (권석만, 김진숙, 서수균, 주리애, 유성진, 이지영 공역). 서울: 학지사. (원전 2003 출판).
- 원고접수일: 2023년 12월 7일
 논문심사일: 2024년 1월 23일
 게재결정일: 2024년 1월 23일

Effects of Childhood–Adolescence Trauma, Early Maladaptive Schemas, and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on Interpersonal Problems among Youth in Transition to Independent Living

Shin Young Park
Chung–Ang University
Course on Doctor Degree

Min Jin Jin
Kongju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Myoung–Ho Hyun
Chung–Ang University
Professor

The study investigated the dual mediation effect of early maladaptive schemas and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adolescence trauma and interpersonal problems of youth in transition to independent living. A survey was conducted with early adults, aged 18 to 34, and data from 201 participants were analyzed. The analysis revealed that early maladaptive schemas and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each significant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adolescence trauma and interpersonal problems. Furthermore, early maladaptive schemas and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showed a significant dual mediating effect in this relationship. The findings reflect the need for therapeutic interventions that consider the sequential mediating roles of early maladaptive schemas and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which are developed following childhood–adolescence trauma. This study provided the psychological mechanisms underlying the interpersonal problems reported by youth in the transition to independent living and highlighted the necessity of early interventions for the traumas experienced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Keywords: Youth in Transition to Independent Living, Childhood–adolescence Trauma, Early Maladaptive Schema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y, Interpersonal Problems